

제주자치도-도의회 첫 업무보고

민선 8기 핵심공약·현안 ‘촉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1~18일 8일간 제407회 임시회 재밋섬 건물 매입 논란,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 관심

원 구성을 마무리한 제12대 제주도의회가 11일(오늘)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함께 도시사적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지적된 재밋섬 건물 활용방안, 제주컨벤션센터 등의 출자·출연기관의 방안 운영에 대한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40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개 상임위원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 현안 및 사업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도의회-집행부간에 서로 공유 및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세차례 회의를 열고 2022년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영훈 제주도정 출범 이후 도의회가 제주도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만큼, 오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제11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돼 폐기됐던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과 ‘강정동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의 처리 여부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

련 ‘보완 가능’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제2공항 관련 지역내 찬반 갈등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 갈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관광위원회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문화예술재단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오영훈 도시사적 인수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선결과제로 지적됐던 재밋섬 건물 활용방안 미수립과 리모델링 예산 확보 문제점 및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경영 악화의 원인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농수축경제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나머지 상임위도 현안 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 1건, 도시사 제출 의안 32건, 교육감 제출 의안 1건을 포함한 총 34건을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대지를 박차고 푸른 항공으로... 9일 제주시 조천읍 서우봉을 찾은 관광객들이 패러글라이딩에 올라 아름다운 제주 바다 위를 비행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도민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난 8일 오영훈 지사-김경학 의장 등 긴급 간담 도-도의회 ‘민생 안정화 추경예산안’ 전격 합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전 도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난 8일 민선8기 제1회 추경안 처리와 전 도민 재난긴급지원금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오는 11일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인 민선 8기 첫 추경예산안은 기존 예산에 비해 8500억원 늘어난 규모로 편성된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곳에 더해 충격 파가 큰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두텁고 촘촘한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원 분야는 취약계층을 비롯해 소상공인, 1차산업, 문화예술·관광, 운송, 청년, 특수고용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감염병 방역 대응 등으로, 3000억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다.

특히 오 도정 출범 후 첫 재난긴

급생활지원금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도와 도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더해 서민가계 생활 부담 경감을 위해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힘내라! 제주, 긴급 재난 생활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총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민 가계의 소득 감소 등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심신까지 위축된 상황을 지원하면서 도민 모두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데 따른 위로금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 제주본부 조사 결과 고물가와 고유가, 고금리 등으로 올 하반기부터 지역경제 위축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서민가계의 살림살이 부담을 덜어주면서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의 경기 진작 유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지급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시기는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지만 도의회가 이달 중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내달부터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 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우선적으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포함해 취약 계층에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이 회의를 통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이와 관련해 의회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경학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가 어려워져 마른 장마처럼 타들어가고 있다”며 “의회와 도가 머리를 맞대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제주도와 도의회 측은 추경안 예산 중 취약계층에 뿌려지는 예산 약 3000억원에 대해 심의를 거친 후, 빠른 시일 내 8월 중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한림정수장 올해말까지 추가 고도처리 도 75억 투입 추진... “수질오염 관리 소홀” 비판도

제주자치도가 정수장 취수원의 수질오염 관리는 소홀히 하고 정수장 시설 개선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비 75억 원을 들여 올해말까지 제주시 한림읍 한림정수장 고도처리시설(막여

과) 증설(1만t/일→1만4000t/일)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고도처리시설 증설사업을 통해 현재 질산성 질소 농도를 4.5mg/l 이하로, 질산성 질소의 전 항목을 먹는물 수질기준 이하로 만들 예정이다.

현재 한림정수장의 시설용량은 2만t이지만 질산성 질소 농도가 먹는물 기준치(10mg/l)에 육박해 고도처리시설인 막여과를 통해 1만 t

을 생산하고 부족한 1만t은 금약정수장과 서광정수장에서 공급받고 있다. 급수지역은 한림·애월·한경 일원으로, 1만6365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20억원을 투자해 한림정수장에 막여과 정수처리시설을 도입했다. 옹포천 원수 오염으로 10년도 안돼 고도처리시설을 증설하는 것이다.

옹포천의 수질오염은 상류지역에 밀집한 양돈·축산시설에서 나오는 분뇨 등의 영향이 적잖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뚜렷한 대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고대모기자

제주 코로나19 신규 253
잠정집계 10일 누적 24만2431
<17시 기준> 누적

제주새마을금고

제주지역 경제회복을 위한 특별판매

7월 11일부터 한도소진시 까지

정기예금 12개월

3.4%

정기예금 18개월

3.5%

부동산 담보대출

4.5%

※ 정기예금 금리는 회원, 비회원 조건없이 제공됩니다.

MG 제주새마을금고

본점 757-3425 (인화동 다나산부인과 옆)

일도지점 757-7432 (제일고 사거리)

이도지점 757-8550 (한일베라체 아파트상가)